

강진군, 데이터로 농업인 현장 지도

농업기술센터 토양 습해 · 염해 등 현장 분석 진단 결과에 따라 재배 시 문제점 해결 컨설팅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영농 현장에서 바로 습해와 염해 등 생육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간이 토양 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이 토양 검정 분석 서비스는 작물에 생육장애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서비스이다. 군은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EC(염류농도), 토양수분 함량, 지온을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간이 토양 검정기기를 비치해 요청 시 즉시 현장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각종 생리장애와 병해충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재배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단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하 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061-430-3652)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더 정밀한 토양검정은 흙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토양 검정실에서는 농촌진흥청의 토양 공정시험법을 이용해 9항목(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칼슘, 칼륨, 마그네슘), 규산, 석회소요량)을 분석해 작물에 맞는 적합한 시비량을 산출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다. 시료 채취 방법은 토양 표면의 이물질질을 걷어낸 후 필지의 토양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점을 선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간이 토양 측정장치를 활용하여 시설하우스 토양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정한 후 표토(表土)를 걷어내고는 ·밭 15cm, 과수원 20cm 깊이의 흙을 채취한 후 골고루 섞어 약 500g을 담아 시료내역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김남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물의 생리장애는 신속한 해결이 최우선인 만큼 현장에서 빠른 진단과 처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분석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완도군이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본신청서 작성 과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해 2017년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년 국제 학술회의와 생태문화 심포지엄을 실시하여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의지를 국내외에 알렸고, 2019년 5월에는 예비신청서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2019년 7월 본신청서를 작성, 2020년 3월 MAB한국위원회본신청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9월 본신청서를 유네스코 본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인 완도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깨끗한 청정 바다를 유지하고 있으며 265개의 유·무인도가 있고 넓은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군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대상은 소안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수목원을 중심으로 한 완도 전역이다.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윤여창 교수)은 “완도수목원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의식을 높여준 것 외에도,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을숲 보전회위원회를 국내 최초로 결성하였고,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도의 청정 이미지를 강화한다.”며 “이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최종 심사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기자협회 장흥지회,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 맞아 해동사 방문 참배



대한기자협회 장흥지회는 지난 14일을 회원 10여 명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을 맞아 해동사를 방문했다. 대한기자협회 장흥지회 회원들은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 앞에서 헌화와 분향에 이어 묵념을 마치고, 사당을 돌아보며 나라를 위해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독립과 평화의 정신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에 따르면 해동사는 국

내 유일의 안중근 의사 사당으로, 지난 1955년 장흥유림 죽산 안씨 안홍천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사재와 모금을 통해 건립됐다. 대한기자협회 장흥지회 회원은 “2월 14일을 그저 밸런타인데이가 아닌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로 기억하며 그분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위지훈 기자



무안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무안군은 지난 14일 무안읍 무안전통시장에서 ‘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청 직원들과 관련단체 등 총 3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군은 무안전통시장 입구에서부터 주변 상가까지 가두행진을 실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이 담긴 전단지들을 상인들에게 배부하며 감염증 예방수칙을 거듭 강조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방역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군민들의 안전문화의식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점검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의식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으로 매달 추진해오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보리생육 관리 철저 당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보리 습해 예방을 위해 현장지도에 나섰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고온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습해와 웃자람 증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겨울철 기상분석 결과 평균기온이 5.1℃로 전년 대비 1.8℃, 평년 대비 2.2℃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군은 고온으로 인해 보리가 생육정지기 없이 빠르게 자라면서 겨울량 조절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웃거름은 요소를 사용해 평년 사용량 대비 절반인 1,000㎡ 당 4~6kg을 2월 중순 안에 살포가 필요하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상기온으로 농작물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 서릿발, 동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함평군 ‘드림스타트 건강관리교육’ 실시

내달 31일 까지 진행 함평군은 다음달 31일까지 드림스타트 전체인동 대상으로 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관리 교육은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을 방문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환절기 건강 및 피부질환, 아토피의 증상, 종류 예방 교육을 펼치며, 보습제도 지원한다. 함평군 주민복지실은 “건강관

리 교육을 통해 생활습관을 알려주며,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MEGABOX 광주첨단점

- 1관 정직한 후보
- 2관 정직한 후보
- 3관 클로젯
- 4관 작은 아씨들
- 5관 남산의 부장들, 정직한 후보
- 6관 슈퍼 소닉, 정직한 후보
- 7관 작은 아씨들
- 8관 클로젯, 극장판 원피스 스탬피드, 버즈 오브 프레이
- 9관 남산의 부장들, 히트맨
- 10관 클로젯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 1관 정직한 후보
- 2관 클로젯, 작은 아씨들, 버즈 오브 프레이, 원피스 스탬피드
- 3관 남산의 부장들, 작은 아씨들
- 4관 클로젯, 정직한 후보
- 5관 슈퍼 소닉, 남산의 부장들
- 6관 클로젯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